

01

오리 농가 10곳 중 6곳 ‘가건물에서 사육’

정부, 시설 현대화 위해 가금농가 전수 조사



시설 현대화된 오리농장에서 재입식을 기다리며 소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리 농가 10곳 중 6곳이 비닐하우스나 판넬 등 가건물에서 오리를 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가금 농가 5,13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작년 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전국 각지로 퍼지는 가운데 오리 농가 시설 현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체 가금 농가 10곳 중 6곳(63.6%)은 일반건축물에서 가금류를 기르고 있었다. 축종별로 보면 닭 농가(4301곳)는 약 70%(2991곳)가 일반건축물에서 닭을 기르고 있었다. 비닐하우스에서 닭을 기르는 경우는 전체 닭 농가의 14.6%(628곳)에 불과했다. 사육 환경이 나쁘지 않은 편이다.

반면 오리는 사정이 달랐다. 전체 오리 농가 828곳 중 가건물에서 오리를 기르는 경우가 503곳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심지어 일반건축물(325곳)보다 비닐하우스(403곳)에서 사육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비닐하우스는 방역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고 보온성도 떨어진다. 겨울철 추위에 가금류 면역력이 약해지면 AI 등 질병이 퍼지기 좋은 구조다.

정부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가장 열악한 시설인 비닐하우스를 판넬형 등 그나마 나은 가건물로 시설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시설 현대화 사업은 정부가 용자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농가가 자부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오리 농가들은 “시설 투자할 여력이 없다”며 정부 사업 참여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 협회와 농가 측은 “정부가 시설 개선에 드는 비용을 용자가 아닌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리 농가 측은 방역시설 개선안 등을 담은 ‘오리 사육 표준 모델’을 만들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부에 전달하고, 내년부터는 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의 제안을 살펴보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전국 가금 농가에서 총 63건의 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그 중 33건이 오리, 28건이 닭 농가에서 발생했다.

출처_조선일보 www.chosun.com



02

맹추위에도 몸단장하는 오리 가족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지난 1월 25일 경남 거창군 거창읍 황강의 한 보 아래에서 오리들이 차가운 물살을 맞으며 몸단장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거창군)

출처_ 뉴스1 www.news1.kr

03

체감온도 영하 20도 ‘오리도 춥다’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한 지난 1월 25일 경기 파주시 법원읍에서 꽁꽁 언 얼음 앞으로 오리가 지나가고 있다. (사진제공: 뉴스1)

출처_ 뉴스1 www.news1.kr

04

눈오리와 같이가는 새하얀 등갯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서부.남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남서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1월 26일(오전 9시 기준) 개학을 맞아 등갯길에 나선 학생들은 동심으로 눈을 반겼다.

긴 겨울방학을 마치고 이날 개학한 서울 영등포구 영중초등학교 들머리에서는 눈길 위로 학생들의 조심스런 발걸음이 이어졌다. 저마다 두꺼운 패딩



점퍼와 부츠, 모자, 장갑 등으로 추위에 대비한 모습이다. 하지만 곳은 날씨에도 주머니 밖으로 빠져나온 눈 오리와 일부러 눈 쌓인 곳을 찾아 밟는 발걸음에는 동심의 설렘이 묻어난다.

출처_ 한겨레 www.hani.co.kr

오리 사육 마릿수, AI 확산에 전분기 대비 35% 급감

육계 사육 마릿수 전년보다 5.2%↓

지난해 4분기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영향으로 오리와 육계 사육 마릿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1월 20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4분기 오리 사육 마릿수는 599만4,000마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5만8,000마리(-11.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570만6,000마리) 이후 3분기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감소 폭은 2021년 4분기(-14.8%) 이후 가장 컸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320만2,000마리(-34.8%)나 감소했다.

고병원성 AI는 주로 가을부터 겨울까지 발생한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평년보다 22일 빨리 확진 농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가축 전염병 확산 위험 지역의 오리를 조기 출하하고 사육 제한 시기를 1개월 앞당기면서 사육 마릿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AI 영향은 육계 사육 마릿수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4분기 육계 사육 마릿수는 8,871만3,000마리로 전년보다 489만 마리(-5.2%) 줄었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75만 마리(-0.8%) 감소한 수준이다. 육계 사육 마릿수는 2021년 3분기(8,369만9,000마리) 이후 5분기 만에 가장 적었다.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2021년 1분기 시로 많이 감소했다가 서서히 증가하더니 지난해 2분기에 평년 수준을 회복했다. 이어 3분기에는 1983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39년 만에 가장 많은 마릿수를 보이더니 4분기에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출처_더팩트 news.tf.co.kr

